

친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진안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 가제

진안군은 지난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 참여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군은 지난 30일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착공식을 가졌다.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1일 240톤의 진안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210톤, 분뇨 10톤, 음폐수 20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 기존 가축분뇨공처리시설(진안읍 전진로 3189-99 일원) 내 14,443㎡ 부지에 조성된다.

시설은 총사업비 386억원(국비 249억원, 기금 49억원, 민간투자비 88억원)을 투입하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진안군은 해당시설이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1일 약 5,000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와 연계해 가스 2,100Nm³를 판매함으로써 연

간 4,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바이오가스 판매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다.

앞서 진안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안바이오에너지(주)를 지난 2020년 5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사업편입부지 토지 매입 등을 진행했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처리시설 방류수를 진안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기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 도입해야”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제안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최윤선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 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도입 제안”을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 참여유도와 생활체육 시책 개발을 통해 개별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와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만큼 체력인증센터가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에도 체력인증센터가 도입되면 모든 군민의 개별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이 가능해져 국민 신체능력 향상과 건강증

진에 크게 기여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체력인증센터가 청년들에게 도약과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군민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담당할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유입으로 군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기여할 거라 예상된다. 그리고 국민체력 100 등급제를 도입하는 정부와 공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군의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어촌버스 통합노선 분리 시행

진안군은 5월 1일부터 진안·무주·장수를 통합 운행하던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 노선을 지자체별 단독 노선으로 분리 운행한다.

기존에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는 진안·무주·장수 3개 지자체를 293개 노선, 38개 코스로 통합 운행해 일일

운행 거리가 13,203.1km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효율성이 낮았다.

이러한 통합노선을 분리해 진안군 농어촌버스 운행의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안을 구성했다.

이에 진안읍을 비롯한 동향면, 안전면, 상전면 운행 농어촌버스의 경우지

및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되며, 경제지역인 동향면과 안전면의 소재지 버스 승강장은 각각 장수군과 무주군 이동을 위한 환승 거점으로 운영된다.

환승 시에는 하차 전 기사에게 환승권을 요청하여 환승 차량의 기사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노선 분리 이후에도 농어촌버스는 성인 1,000원(65세 이상 무료), 학생 5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랑과 감사로 화목한 5월을”

무주군 5월 청원 월례초회 현안업무 추진 의지 다져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 추진단장 임용장 전달식 적극행정 관련 교육도



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5월 월례초회가 열렸다.

무주군 공직자들은 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5월 월례초회를 갖고 현안 업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5월이 ‘가정의 달’임을 강조한 황인홍 군수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 마음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넘쳐나는 웃음이 군청 조직에는 활기를, 무주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라며 매 순간 그 가치를 깨달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한 황 군수는 “소관 부처 예산편성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중대재해사고는 처벌 여부를 떠나 소중

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이 달린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를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 결과분석을 비롯한 의회와의 소통강화에 주력해줄 것과 △무주반디상상숲(북합문화도서관) 개관 및 산골영화제(6월 5~9일) 등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 △산불,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초회에서는 무주읍상

권활성화사업추진단 최은영 단장에 대한 임용장이 전달됐다.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공모)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상권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으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상권 육성과 지속 가능한 무주 상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이어진 직장교육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이승은 전문위원(함께성장컨설팅 대표&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노하우”를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편익 증진·민생안정 강화

무주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7억원 편성 군의회 제출

무주군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7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민생안정을 꾀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38억 원을 세웠으며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13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는 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성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에 4억 원, 국가 지정 문화재·국가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 등도 포함됐다.

주민 편익 지원사업에는 17억 원,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사업에 14억 원,

둔당마을 진입 교량 설치공사에 11억 원, 재해취약지역 응급 복구에 2억 원을 편성해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속원사업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황인홍 군수는 30일 열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무주군 총예산은 5,064억 원”이라며 “무주군이 농촌지역의 수입 안정과 민생, 환경, 관광 등의 지역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년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진안서

9월 마이산 북부서 개최

진안군이 2025년 열리는 제34회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는 전국의 임업후계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족 다짐을 하는 행사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 회의에서 진안군이 유치 지점으로 선정됐다.

전국대회는 2025년 9월 마이산 북부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참가인원 1만 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술, 문화, 체험, 임산물 판매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전국대회 추진위원회를 오는 7월 구성하고, 임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업무수행과 대회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 임업후계자 협의회장은 “전국대회를 진안군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국대회 유치에 애써 주신 유관기관 및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의 풍부한 산업을 최대한 활용해 임업의 가치를 높일 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16회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개최

장수군에서는 ‘제16회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오는 4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의암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29개 단체가 참여하며, 40여 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캐리커처, 로보배틀, 토탈공예 등)가 운영된다. 부스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월 장수는 어린이 공화국이다’를 주제로 더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 ‘어린이 모의 UN 연설’ △장수군립도서관 ‘책나눔 행사’ △장수YMCA ‘미션 챌린지’ 이 운영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안전재책으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적 배치하고 경찰, 소방, 의료분야 안전요원이 상주해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우선 시 한누리당 산디관 및 다목적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어린이날 기념행사·체험마당 개최

무주군은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달려라 미래! 날아라 희망으로! 반딧불이 큰잔치’를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무주반딧불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청소년 K-POP댄스를 시작으로 어린이날 기념식이 진행된다.

어린이 체험마당에는 주먹밥과 아이스크림, 솜사탕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키링을 비롯한 팔찌와 인형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만들기 부스, 비눗방울, 풍선놀이, 미야 방치 지문 등록, 심폐소생술, 태권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체험이 가능한 부스가 마련된다.

한편,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에서도 무주방문 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6일까지 모기 기피제와 곤충표본,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또 곤충화석과 은행잔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만들기 부스, 비눗방울, 풍선놀이, 미야 방치 지문 등록, 심폐소생술, 태권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체험이 가능한 부스가 마련된다.

한편,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에서도 무주방문 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6일까지 모기 기피제와 곤충표본,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또 곤충화석과 은행잔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주우체국 하정수 집배원에 감사패

무주군은 1일 전북지방우정청 무주우체국에 근무하는 하정수 집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하정수 집배원은 지난 달 11일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적산면 남원국도관리원 인근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50대)를 구조해 생명을 살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극한강우 대비 상황판단·주민대피 훈련 실시

진안군은 지난 3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극한강우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진안읍 남광진솔아파트 일원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앞서 협업부서 13개반 및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 자율방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극한 호우 상황을 설정해 현장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재난 발생 우려 시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다.

김병하 진안부군수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국지적으로 강우가 집중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렇게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임무 및 역할을 숙지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대상 보존관리 교육

진안군은 지난 30일 진안향교 충효관 강당에서 문화재돌봄센터(전북돌봄센터), 진안소방서와 함께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위요요인 파악, 화재대응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돌봄센터의 정경미 센터장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유산의 개념변화와 소유자·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강의와 진안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 및 점검요령에 대한 교육이었다.

또한 소유자·관리자들과 함께 진안향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현상에서의 위요요인을 파악하는 실습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움창구 운영

장수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장수군과 남원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 경비를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되며 오는 5월 중순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안내서(납부서)를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는 방문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신고(손택스)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로 연동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장수=고관호 기자